

걸그룹 출신 스타들, 스크린서 흥행 대결



김희애

'잠적'을 위해 첫 나홀로 여행 38년 차 김희애의 이색 도전

소탈한 일상 공개하는 예능 '잠적' 오늘 첫방 연말에는 영화 '데드맨' 촬영... 첫 OTT 도전

데뷔 38년 차 배우 김희애의 도전은 끝이 없다. 김희애가 2일부터 방송하는 디스커버리채널·SKY 예능프로그램 '잠적'으로 일상을 드러낸다. 또 새롭게 주연하는 영화에서는 정계 비선실세 역을 맡아 또 한번 변신한다.

김희애는 '잠적'을 통해 데뷔 이후 처음으로 예능프로그램에 단독 출연한다. 자동차 여행을 담는 프로그램을 위해 지난날 직접 자동차를 몰고 2박3일의 여행을 떠났다. 연기로는 미처 전하지 못한 인생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낸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홀로 여행을 떠난 적이 없어 '색다른 시도'의 의미로 출연했다.

연출자 서승환 PD는 1일 "그동안 일상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희애의 소탈한 모습이 시청자에게 새롭게 다가갈 것"이라면서 "38년간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쌓은 관록과 연륜을 이야기에 담았다"고 자신했다. 김희애도 촬영 이후 만족감을 드러냈다. 서 PD는 "그동안 시청자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창구가 없어 느낀 감증을 해소했을 것"이라면서 "촬영을 마치고 (김희애가) 배우나 누군가의 엄마와 아내가 아닌 '나'에 집중할 수 있어 좋았다며 기뻐했다"고 전했다.

김희애의 "도전에 대한 갈망"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연말 촬영을 시작하는 웨이브의 오리지널 영화 '데드맨'으로 첫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작품에 나선다. 배우 조진웅·류혜영과 함께 주연한다. 김희애는 정계의 권설턴트이자 비선실세 역할로 범주자 누명을 쓴 조진웅과 대립한다. 그동안 그려온 섬세한 감성의 캐릭터와는 180도 다른 모습을 선보인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임윤아, 경상도 사투리 연기 눈길 한선화·한승연, 첫 장편영화 도전 방민아, 뉴욕 靑영화제 수상 성과 충무로에 다양한 연기자층 시너지

"너무 꿈같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15일 개봉하는 영화 '기적'(감독 이장훈·제작 블러썬픽처스)의 주연 박정민이 1일 내놓은 말이다. 이날 '기적'의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그는 자신이 그룹 소녀시대의 팬이었다면서 함께 주연한 소녀시대 출신 임윤아를 바라보며 '연기 선배'의 겸손한 인사를 전했다.

이처럼 아이돌 스타들은 동료 연예인들에게도 때로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런 이들이 자신들의 무대를 객석에서 바라보던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며 9월 스크린의 주역으로 나선다. 임윤아(31)를 비롯해 시크릿의 한선화(31), 카라의 한승연(33), 걸스데이 출신 방민아(28)이다. 2000년대 이후 한동안 무대를 뜨겁게 달궜던 이들이 펼칠 선의의 맞대결은 충무로에도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을 전망이다.

●혼란의 10대부터 로맨스의 주역까지

포문은 방민아가 열었다. 1일 주연작 '최선의 삶'(감독 이우정·제작 마일스톤 컴퍼니)을 선보였다. 혼란스런 10대의 시절에 세 소녀가 집에서 뛰쳐나온 뒤 서로 갈등하고 함께 견어내는, 그들만의 힘겨움을 그렸다. 방민아는 '최선의 삶'을 통해 본격적인 스크린 주연의 자리를 껴차



영화 '기적'의 임윤아·'영화의 거리' 한선화·'쇼미더고스트'의 한승연·'최선의 삶' 방민아(왼쪽부터)가 9월 스크린의 주역으로 나선다. 로맨스부터 코믹 공포, 휴먼드라마 등 다채로운 장르 안에서 이들 아이돌 출신 연기자들이 어떤 성과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영화 '기적'의 임윤아·'영화의 거리' 한선화·'쇼미더고스트'의 한승연·'최선의 삶' 방민아(왼쪽부터)가 9월 스크린의 주역으로 나선다. 로맨스부터 코믹 공포, 휴먼드라마 등 다채로운 장르 안에서 이들 아이돌 출신 연기자들이 어떤 성과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며 향후 활약을 기대하게 한다. 한승연과 한선화는 첫 장편영화로 관객을 만나는 아이돌 출신 연기자라는 공통점으로 승부를 펼친다.

한승연은 9일 관객을 만난다. 공포 장르에 코미디를 버무린 이색적인 이야기 '쇼미더고스트'(감독 김은경·제작 인디스토리)를 무대 삼는다. 함께 살게 된 20년 절친이 집에 든 귀신을 몰아내기 위해 벌이는 좌충우돌 해프닝을 그리는 영화이다. 2013년 드라마 '장옥정, 사랑에 살다'로 본격적인 연기의 길에 들어선 한승연으로서는 첫 주연 영화를 선보이는 작지 않은 기회를 만났다.

한선화도 첫 장편영화를 선보인다. 15일 개봉하는 '영화의 거리'(감독 김민근·제작 제작사 눈)로, 로맨틱 코미디의 주인공이 된다. 남자친구와 이별과 재회 사이를 오가는 영화 로케이션 매니저 역이다. 그는 지난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창밖은 겨울'을 공개했지만, 아직 정식

개봉을 하지 않아 '영화의 거리'로 일반 극장에서 관객과 처음 만나게 된다. 임윤아는 '기적'에서 마을에 간이역을 들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펼쳐며 따스한 이야기를 펼쳐낸다. 특히 경상도 사투리 연기로 이색적인 모습을 담아내며 새로운 면모를 과시한다.

●흥행과 수상 성과... '성숙한 연기 기대'

가요계 한 관계자는 1일 "케이팝이 전세계적인 인기를 모으는 사이 2000년대를 전후해 활동했던 이들이 새로운 가수들에게 무대를 물려주게 됐다"면서 자연스런 세대교체에 따라 새롭게 연기자로써 위상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돌 스타 출신 연기자들이 유난히 스크린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전문 연기자들이 구축한 장벽이 만만치 않게 높은 데다 아직은 실익은 연기력에 아이돌 그룹 멤버라는 고정적 이미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임윤아는 앞서 2017년 '공조'로 780만, 2019년 '엑시트'로 940만 관객을 각각 불러 모으며 흥행의 단맛을 맛봤다. 또 방민아는 최근 '최선의 삶'으로 미국 뉴욕 아시안영화제에서 국제 라이징 스타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한승연 역시 '쇼미더고스트'가 올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NH농협 배급지원상을 받아 새로운 연기의 거점을 마련하게 됐다. 한선화는 실제 고향인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의 거리'에서 실감 나는 사투리 연기를 펼쳐 호평받고 있다. 한 영화 관계자는 "이들 모두 30대를 전후한 나이가 됐다"면서 "이전 아이돌 스타들과는 다른, 성숙한 면모로 카메라 앞에 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만큼 참신한 얼굴을 찾으려는 충무로에도 다양한 연기자층을 형성하는 시너지의 요인이 되기를 바랐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미스터트롯' 6총사, 13일부터 원소속사 새 출발

티조C&C 기간제 활동 12일 만료 임영웅, 내년 초 대형공연 기대감

'대세 트롯맨'들이 새 출발한다.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등 '미스터트롯'이 배출한 '톱6'가 13일부터 각각 원 소속사에서 다양한 활동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무명의 설움을 딛

고 1년 6개월 동안 깔고 닦은 강점을 살려 다양한 무대에서 각자 매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미스터트롯' 종영 이후 방송사인 TV조선의 자회사 티조C&C와 손잡고 펼친 1년 6개월의 기간제 활동을 12일 마무리한다. 각자 원래 소속사로 돌아가 정규 앨범을 내고 공연 등을 펼칠 예정이다.



임영웅

이들은 기간제 활동 동안 단독 콘서트나 팬미팅 등 개인 무대에는 오르지 못했다. 지금까지 '미스터트롯'의 이름으로 여섯 명이 함께하는 무대를 위주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왔다. 물론 각자 음악적 색깔을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는 정규앨범도 발표하지 않았다. 1일 임영웅의 소속사 물고기컴퍼니는 조만간 자사로 돌아오는 그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력을 구축하는 등 활동에 대비하고 있다. 또 한때 논란을 빚은 CJ ENM '공연 계약설'과 관련해 감염병 확산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초께 무대를 꾸밀 가능성이 나온다.

한술밥을 먹고 있는 이찬원과 김희재도 소속사를 통해 13일 공식 SNS를 개설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이미 '커밍 슌'이라는 티저 이미지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또 김희재는 한 연기자의 소속사와 손잡고 연기 분야로도 발을 넓힐 계획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2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